

# 생명 문화 정립을 위한 시론적 모색

이 재 복  
(한양대학교)

## 1.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과 생명 문화

인류 문명이 이룩해 놓은 지식의 총량과 기술의 능력으로 인해 이제 한 단계의 커다란 정신적 도약을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sup>1)</sup>는 사실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 공감은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래에 들어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 권력이 되면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그 과도한 경쟁은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경쟁이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또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이 절대적인 속도의 상태에 이르면 그것에 대한 복잡성(complexity)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전경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문명사 전반에 대한 불안과 위기뿐만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문제를 강하게 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서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분히 변증법적인 진보의 논리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변증법이란 어떤 문제의 실상을 관련 맥락과 연관시켜 모순과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

1) 장희익, 『과학과 메타과학』, 지식산업사, 2002, p.7.

진리를 추구하는 논리이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상호 모순을 통한 이상적인 종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부정적인 현실과 유토피아적인 미래가 대립한다. 현실 맥락에 대한 강조와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증법은 역사의 진보라는 논리를 구현하는 데 그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변증법이 새로운 시대의 진리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도입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서구의 역사가 변증법에 토대를 두고 발전해 왔다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증법의 논리는 상호모순과 종합을 지향하지만 이때의 종합이란 우열 혹은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억압과 소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이분법적이며, 힘의 논리에 의해 종합을 시도하려는 속성을 드러낸다. 이분법적인 우열의 논리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이다. 이성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모순의 변증법적인 종합은 세계에 대한 합법칙성을 지닌 논리로 인식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성에 대한 절대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성이 곧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월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이성은 니체, 아도르노, 푸코, 데리다 등 의식 철학자들로부터 타자를 절대화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이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합리성을 내세워 이성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세계 속에서 분열된 인륜적 총체성을 회복하려고 한다.<sup>3)</sup>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주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행위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현대사회의 익명적 권력의 그물망 안에서 유한한 주체가 어떻게 자율을 획득할 수 있는 하는 문제는 그의 철학에서 간과되고 있다’<sup>4)</sup>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겨냥하고 있는 주체의 회복은 단순히 현대사회의 구조나 제도에 국한시켜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행사하는 권력으로부터 주체가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 홍윤기, 「변증법」, 『철학과현실』 제27호, 1996년 겨울호, pp.315-325 참조.

3)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6, p.52.

4) 위르겐 하버마스, 앞의 책, p.464.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의 타자에 대한 절대화이다. 이성의 타자를 절대화함으로써 인간은 상생과 융화적인 관계를 통해 성립되는 공동체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한 타자의 경우 이성의 범주에서 멀거나 차이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이성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한 타자를 해체해야 한다. 타자의 해체란 타자의 자율성 혹은 개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개체성은 곧 타자의 주체성에 다름 아니다.

타자가 이성에 의해 절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성이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성이 이러한 구분에 척도가 될 어떤 내적 필연성도 여기에는 없는 것이다. 이성이 척도가 된 것은 순전히 인간의 필요에 의한 작위적인 결정일 뿐이고, 신과 같은 초월적 지위를 부여받으려는 욕망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의 초월적 지위를 해체함으로써 타자의 절대화로부터 벗어나려 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역시 이러한 욕망이 약화된 것일 뿐 그것이 온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기존의 이성의 초월적 지위를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기존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두 패러다임을 ‘동일한 평면상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패러다임과는 ‘무관한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인간 사고의 기본적 구조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sup>5)</sup> 하는 지도 모른다. 하지만 패러다임과는 무관한 요소를 찾아내어 기본적 구조를 밝히는 것 역시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으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이 가치나 이

5) 장희익, 위의 책, pp.40~41.

념과 같은 정신적인 것과 제도나 체계, 도구와 같은 물질적인 것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밝히는 일이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성이 아닌 그것과 대비되는 또 다른 척도 아닌 척도를 찾으려 한다. 이성과는 달리 타자를 절대화하지 않는 그 척도 아닌 척도란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이성이 절대화한 ‘생명’이다. 이성은 생명마저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를 앞세워 그것의 존재성을 규정하고 개념화하기에 이른다. 생명은 이성의 논리로 온전히 해명할 수 없는 영역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명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에 국한된 것이지만 생명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 무생물에게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의 척도로 보면 인간과 이성이 타자로 절대화한 짐승, 나무, 꽃 심지어 곤충 사이에는 우열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잡초의 생명보다 더 신비하다거나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적인 척도로 내세우고 신뢰하는 이성 혹은 과학은 아직 그 잡초의 신비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명이 이성을 대체하면 세계 이해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이성 혹은 그것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인류 문명사 전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물론 이성이 미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성찰을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성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그것이 이성과는 달리 관념적이고 개념화된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 존재하는 살아 있는 실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그것을 잘 드러내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 감각이나 느낌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살아 있는 존재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몸’이다. 몸은 이성이나 과학으로 그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것은 몸이 이성, 감정, 영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차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복잡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몸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존재라기보다는 생성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몸은 현상이나 개념의 논리로 해명할 수 없는 현상과 경험의 세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몸으로 세계를 이해하면 ‘존재’, ‘실체’, ‘주체’ 같은 전통적인 이성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성’, ‘역동성’, ‘운동’ 등이 세계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sup>6)</sup>이 탄생한다. 이렇게 몸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 이성에 의한 변증법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변화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변화의 논리란 ‘생성’, ‘역동성’, ‘운동’ 등이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넘어선 자연과 우주 차원에서의 거대하고 신비한 유기적인 흐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타자를 절대화함으로써 몸, 자연, 우주 같은 생명의 유기적인 흐름에 대한 인식이 망각되어 오히려 인간은 이 관계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소외는 인간의 문화를 ‘영성,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 등 생명의 네 가지 본성’<sup>7)</sup>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이 네 가지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문화는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이 방향성을 잃거나 자기반성을 행하지 못해 스스로 파멸하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는 생명의 네 가지 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각한 채 단순히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표피적인 욕구나 욕망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의 반성은 물론 어떤 전망(perspective)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체적인 감각이나 감성이 이성을 대신하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포스트모던한사회의 특성은 ‘즉물성(卽物性), 소아성(小兒性), 몰아성(沒我性)’ 등과 같은 천박하고 메마른 세계<sup>8)</sup>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천박하고 메마른 세계의 특성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몸이 지니고 있는 영성,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 등 생명의 네 가지 본성과 이것들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

6) 박재주, 『주역의 생성논리와 과정철학』, 청계, 2001, p.13.

7) 김지하, 『생명과 가치』, 솔, 1996, p.342.

8) 이정우, 『가로지르기』, 민음사, 1997, pp.128-135.

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몸은 그 안에 지금 이 시대 문화의 천박함과 숭고함, 생명성과 반생명성, 부정성과 긍정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몸의 이러한 속성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왜 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몸이 지니는 생명의 본성이 어떻게 천박하고 메마른 세계의 중심에서 솟구쳐 오르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인식론적인 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2. 몸, 생명, 우주의 카오스모스(chaosmos)

몸의 본래적인 생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성에 의해 절대화된 타자로 간주된 자연 혹은 우주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몸이 곧 자연이고 우주 생명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망각은 반생명성의 문화 속에서 몸이 은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이 자연과 우주 이해의 중심이 된 서양에서도 몸을 소우주라고 하여 몸의 구조와 우주의 구조 사이의 유비적인 관계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몸의 헤게모니를 유물 철학이나 의학이 쥐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소수의 비주류 담론으로 존재하기에 이른다. 서양의 의학은 18세기 말 이후 임상 의학과 해부 병리학을 거치면서 인간의 몸을 ‘수학적 실험적 객체화로 간주하여 공간화된 신체의 부분들을 기준으로 분절’<sup>9)</sup>해 왔다.

몸의 이러한 분절은 몸에서 기(氣), 혈(血) 같은 경락(經絡)의 생성과 운동을 배제한 채 외부 증상이나 징후에 대응되는 어떤 환부(자리, 공간)만을 탐색함으로써 전체적인 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이 사실이다. 몸의 분절은 부분의 이해에 집중하여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화된 몸의 세계를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조정하게 된

9) 이정우, 위의 책, p.75.

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분절이 아니라 흐름으로 몸을 이해하면 기와 혈맥 같은 것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기와 혈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연이나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인간의 몸)을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가 허하다'라든가 '맥이 약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자연이나 우주와의 교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인간의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나 혈맥 같은 생명의 에너지가 존재한다<sup>10)</sup>고 할 수 있다.

몸의 기나 혈의 흐름이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은 소우주라기보다는 우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몸은 우주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철학자인 장횡거와 왕부지는 인간을 '우주적인 기가 몸 속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존재'로 간주한다. 몸과 우주 혹은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를 이리한 기와 혈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면 우주란 인간과 분리되어 어디 멀리 있는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인 것이다. 인간의 몸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인간의 몸이라는 사실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늘 들며 마시고 내쉬고 하는 일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일 공기(기)의 이러한 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예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뿐만 아니라 공기도 함께 먹는 것이다. 공기를 함께 먹지 않으면 밥은 인간의 몸 속에서 제대로 소화될 수가 없다.

몸과 우주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급격하게 인간의 인식을 지배한 근대 이후의 일이며, 고대인들의 사유 속에는 이 거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과 우주가 둘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일상의 삶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은 몸과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과 우주는 하나의 기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 흐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동적인 양(陽)과 정적인 음(陰) 그리고 동정 이전의 상태인 천지인 삼태극(三太極)을 모두 포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그것

10) 이재복, 「산술 소식에 접하여 몸을 말하다」, 『시작』, 2010년 겨울호.

을 ‘율려(律呂)라고 명명하고 있다.<sup>11)</sup> 이런 점에서 보면 율려는 ’천지인 3기를 함유하고 있는 삼태극이 동과 정, 음과 양을 반복하면서 대대유행(待代流行)해 가는 것‘<sup>12)</sup>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율려가 우주의 율, 다시 말하면 ’우주 생명의 율‘이라면 인간의 몸 역시 우주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살아 있는 생명체인 것이다.

우주 생명의 율에 따라 천지인의 삶 특히 고대 혹은 한국, 중국 등 동북아인의 삶이 이어진 것이라면 그 흔적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그것은 의, 식, 주 같은 일상의 형태로부터 노래, 춤, 굿, 시와 같은 의식이나 예술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그 형태는 점차 사라지거나 아니면 은폐되어 제대로 우리의 일상과 의식 그리고 예술의 양식에 적용되어 그것이 중심적인 가치로 부상하거나 의 미화 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 말 앞에 늘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전통 의상, 전통 음식, 전통 가옥, 전통 가요, 전통 춤, 전통 굿, 전통 시가 등의 경우에서처럼 언제나 우주 생명의 율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의식, 예술의 형태들은 서구의 것에 비해 열등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보편성으로서의 지위나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통이라고 명명되는 것이 비록 근대 이후 단절의 양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의식주나 의식 그리고 예술의 차원에 은폐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급격한 서구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이라고 명명되는 우리의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화와 근대화로 인한 인간 실존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그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서구화와 근대화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부상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본래적으로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원형이나 원형질 같은 것이

11) 반고, 『漢書』 卷21上, 律曆志 第1上, 北京, 中華書房, 1992, p.964.

12) 우실하, 「율려(律呂)와 삼태극(三太極) 사상」,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4, p.248.

지니고 있는 우주 생명의 율에 입각한 복승(復勝)의 시기가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주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기후변화,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오염, 인간성의 변질과 파괴 등은 지구의 자정 능력의 시기를 더 앞당기는 징조들에 해당한다.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개벽 세상이 온다는 동학 정역계의 예언은 단순한 신비주의자들의 미신이 아니라 우주 대 혼돈(Big Chaos)의 시기를 변화의 역(易)으로 풀어낸 우주 생명학의 논리<sup>13)</sup>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 생명학은 동학, 불교, 유교 등 우리의 종교나 사상에 토대를 두고 정립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의 율이란 과거 우리 민족의 원형이나 원형질 속에 내재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한 장으로 수용되어 역동적인 삶의 원리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민중들은 따로 우주 생명학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인지하면서 우주 생명을 실천하고 또 생활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에 들어서도 우주 생명에 대한 이러한 실천과 생활화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서구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공간을 중심으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주 생명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원형으로 남아 있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관념적인 지식의 형태가 아닌 일상 혹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서정주의 ‘질마재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인 스스로 신화라고 명명한 것처럼 질마재라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대의 이성적인 투명함이나 합리적인 체계성의 논리로 해명할 수 없는 불투명함과 혼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질마재 上歌手의 노랫소리는 답답하면 열두 발 상무를 짓고, 따분하면 어깨에 고깔 쓴 중을 세우고, 또 喪輿면 喪輿머리에 띄어별 같은 놋쇠 요령 흔들며, 이승과 저승에 뺨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하는 어느 아침에 보니까 上歌手는 뒤간 똥오줌 항아리에 똥오줌 거름을 옮겨 내고 있었는데요. 왜, 거, 있지 않아, 하를

13) 김지하, 「음개벽(陰開闢)에 관하여」,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2005, pp.66-81 참조.

의 별과 달도 언제나 잘 비치는 우리네 똥오줌 향아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붕도 앓세 작파해 버린 우리네 그 참 재미있는 똥오줌 향아리, 거길 明鏡으로 해 망건 밑에 엮발질을 열심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망건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털들을 망건 속으로 보기 좋게 밀어넣어 올리는 쇠뿔 엮발질을 점잔하게 하고 있어요.

明鏡도 이만큼은 특별나고 기름져서 이승 저승에 두루 무성하던 그 노랫소리는 나온 것 아닐까요?

- 「上歌手의 소리」 전문.14)

## 나

원 마을에서도 品行方正키로 으뜸가는 총각놈이었는데, 머리술도 제일 짙고, 두개 앞이빨도 사람 좋게 큼직하고, 씨름도 할라면서사 언제나 상씨름 밖에는 못하던 아주 썩 좋은 놈이었는데, 거짓말도 에누리도 영 할 줄 모르는 숫하디 숫한 놈이었는데, <소 X 한 놈>이라는 소문이 나더니만 밤 사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저의 집 그 암소의 두 뿔 사이에 봄 진달래 꽃다발을 매어 달고 다니더니, 어느 밤 무슨 어둠발엔지 그 암소하고 둘이서 그만 영영 사라져 버렸다. 「四更이면 우리 소누갈엔 참 이쁜 눈물이 고인다」 누구보고 언젠가 그러더라나, 아마 틀림없는 聖人 녀석이였을거야. 그 발차취에서도 소똥 향내쫂 살퐁이 나는 틀림없는 틀림없는 聖人 녀석이였을거야.

- 「소 X 한 놈」 전문.15)

를 보자.16) 먼저 「上歌手의 소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上歌手’

14) 서정주, 『미당 시집 1』, 민음사, 1994, p.344.

15) 서정주, 『미당 시집 1』, 민음사, 1994, p.388.

16) 나는 이미 미당의 『질마재신화』의 시편들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차원에서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의 내 글의 요지는 미당의 이 시편들이 우주 생성의 원리를 토대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미학을 성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이 우주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주 생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우주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언급은 생명 문화 정립을 위한 일정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그로테스크」, 『우리말글』 47집, 우리말글학

이다. 상가수란 말 그대로 최고의 가수란 뜻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한낱 농부에 지나지 않는 그에게 상가수란 명칭을 부여한 것일까?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 하는 사람이라면 상가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이 그에게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의 노랫소리가 이승과 저승에 뻗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상의 똥오줌과 천상의 별과 달을 그가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소리가 이승과 저승,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단숨에 훌쩍 뛰어 넘는다는 시인의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과장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을 과장해서 노래 잘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시인의 농부에 대한 칭찬은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인의 칭찬은 노래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시인이 상가수라는 명명 속에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라 ‘노래와 인간(인간의 삶)과 우주’라는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농부의 노래는 일상이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이나 삶과 유리되고 폐쇄된 특별한 공간(무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농부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시공간이 곧 무대인 것이다. 농부에게는 분리의 의식이 없다. 그는 똥오줌 항아리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본다. 그에게는 지상의 가장 추한 똥과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달과 별 사이를 구분 짓는 분리와 분화의 의식이 없다. 미추의 경계가 없는 세계 인식이란 그가 노래를 한낱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신산고초(辛酸苦楚)를 다 겪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추구하는 소리가 단순히 맑고 아름다운 소리인 천구성을 넘어 신산고초를 다 겪고 난 이후의 어둡고 탁한 소리인 수리성인 것이다. 진정한 소리는 바로 이 어둡고 탁한 소리인 수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리성을 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미와 추는 물론 이승과 저승, 지상과 천상, 기쁨과 성냄, 슬픔과 즐거움, 성스러움과 통속함, 남성과 여성, 젊음과 늙음, 이별과 만남 등 ‘서로 상대적인 것들을 하나

로 혹은 둘로 능히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수리성인 것'이다. 수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적인 것들을 '삭히고 견디는 인육정진(忍辱精進)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감새 혹은 그늘'<sup>17)</sup>이라고 한다. 수리성에는 늘 그늘이 깃들어 있으며, 그늘이 없는 소리는 소리꾼으로서의 자격도 소리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 그늘이 깊어지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우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질마재의 상가수의 소리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온갖 신산고초를 삭히고 견디면서 끊임없이 정진하여 얻어낸 것으로 여기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노랫소리가 '이승과 저승에 뻗쳐 있는 것'도 또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그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랫소리가 우주를 바꾼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지극한 기운(至氣)이 우주와 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주 생명의 율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극한 기운에 의해 얼마든지 새롭게 생성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우주와 인간 어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주 생명의 율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 생명이 인간과 같은 개체성과 우주라는 총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개체성은 총체성 안으로 온전히 수렴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총체성은 다시 개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주 생명의 총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우주 생명의 총체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기존의 개체 생명과는 다른 전일적인 실체로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나타난 생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장희익은 이러한 생명을 기존의 생명 개념과 구분하여 '온생명(global life)<sup>18)</sup>'이라고 명명한다.

온생명의 개념이 지구 차원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주로 확장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에서 우주로의 확장은 다소 허황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온생명(global life)'이라는 말 역시 현대과학

17) 김지희,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 실천문화사, 2005, pp.48-50 참조.

18) 장희익, 『온생명』, 숲, 1999, p.179.

의 범주 안에서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현대과학의 눈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동양의 직관과 지혜에 입각해 '우주 생명'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일도 온생명이라는 규정 못지않게 절실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 X 한 놈」에서처럼 우리의 오랜 삶의 척도는 우주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날의 이성과 과학의 논리로 어떻게 소와 수간(獸姦)한 총각 놈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논리로 볼 때 인간과 소와의 수간은 절대 아름답고 성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소와의 수간이 '우주적인 주기를 맞아 행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sup>19)</sup>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 총각의 수간은 우주적인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각, 다시 말하면 인간됨됨이의 척도를 우주적인 질서에 순응하느냐 아니냐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주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총각이야말로 인간 중의 최고의 인간, 질마재의 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상인간'이 되는 것이다. 시 속의 총각은 품행이 방정하고 몸도 준수하고 아주 진실한 '숫하디 숫한 놈'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총각의 됴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四更이면 우리 소누깁엔 참 이쁜 눈물이 고인다"고 한 총각의 말이다. 소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 우주의 불일이불이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그런 총각에 대해 '聖人'이라고 명명한다.<sup>20)</sup>

라고 해석한 바 있다. 시인이 질마재 사람들에게서 본 것은 우주의 질서에 승순(承順)하는 삶이다. 똥이나 푸는 평범한 농부가 상가수가 되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숫총각이 상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우주의 질서에 승순하였기 때문이다. 우주의 질서에의 승순은 지극한 기운으로 우주의 역(易)을 감지하고 그것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던질 때 가능한 일이다. 상가수

19) 고은숙,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p.19-20.

20) 이재복, 앞의 글, p.462.

의 지극한 기운이 ‘똥오줌 항아리에 하늘의 별과 달을 비추게 한 것’이고, 상 인간의 지극한 기운이 ‘사경의 소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게 한 것’이다. 지극한 기운이 이들의 몸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생명의 율은 지극한 기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극한 기운이나 우주(자연)의 지극한 기운은 다르지 않다. 가령 우주 혹은 자연의 지극한 기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이슬, 비, 서리, 눈을 내려 못 생명들을 기르듯이 인간도 똑같이 외부적인 강제나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못 생명들에게 인, 의, 예, 지의 마음을 베푼다는 것’<sup>21)</sup>이다. 인간의 지극한 기운은 우주의 지극한 기운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동적일 때나 정적일 때나 성할 때나 패할 때를 막론하고 모두 천명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sup>22)</sup>한다. 우주 생명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인간 생명도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하늘)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가지는 무한한 이타성의 세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생명에 대해 인간이 가져온 배타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지하고 있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 문화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 문화는 혼돈을 잉태한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산알의 문화와 문화의 산알

우주 생명 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것은 과학기술과 자본을 통해 형성되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반생명성을 드러내면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후기자본주의 문화논리의 지배력은 전세계를 몇몇 다국적 기업이 독점화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만

21) 오문환, 「동학의 생명평화 사상」,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4, p.62.

22) 수 운, 「論學文」, 『東經大全』.

들어 주종 관계의 영속화를 초래하였고, 과학기술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도그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생명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망각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자본과 과학기술의 이러한 부정성의 급격한 확산은 물질이나 육체, 감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차원의 비대함으로 이어져 정신이나 마음, 영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축소시키고 소멸시켜 인간의 정체성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 자연, 우주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차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 영혼과 같은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생명의 깊이 있는 이해를 가로막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패러다임으로 인해 우주 생명 문화는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 생명 문화의 위기는 그것이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생명 문화에 대한 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주 생명 문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전통은 몸을 통해 구현되고 또 실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몸과 우주와의 관계를 망각하면서 그것이 지니는 무한한 생명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의 문화는 점점 표피적이고 복제화 된 인공의 생명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주를 법(法) 받거나 승순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이성에 입각해 표피적이고 복제화 된 인공 생명을 생산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이나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정 능력과 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자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 무질서가 초래되어 큰 혼란이 도래할 것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지구상의 못생명들을 사라지게 하여 생명의 고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주와 맺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지평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 우주 생명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물질 속에 ‘열’이 있고, 그 열은 개인 반성과 집단 반성의 과정을 거쳐 ‘열누리’로 진화하며, 그 열누리는 결국에는 여러 중심들 가운데 빛나는 중심, 다시 말하면 매우 자율적인 하나 아래에서 전체의 하나됨과 각 개체의 개체화가 서로 섞이지 않고 동시에 최고가 되는 오메가 포인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sup>23)</sup> 우주의 무한한 생명성의 표상인 오메가 포인트는

생명의 수렴인 동시에 확산으로 이것은 살아 있는 생명의 알맹이인 ‘산알’에 비견할 수 있다.

산알은 ‘생명령(生命靈)이나 영적인 생명치유력의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북한의 경락학자인 김봉한<sup>24)</sup>에 의하면 몸 안에는 365종의 표층 경락과 360류의 심층 경락이 있어 신비한 생명 현상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의 경락 이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복승(複勝)’이라는 용어이다. 복승이란 ‘인체 내의 365종의 표층경락이 세포나 내분비 등 일체 생명생성 활동을 지휘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 음양생극(陰陽生剋)의 이진법적 생명생성 관계가 무너지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하여 근본 치유력이 소실될 때 그 밑에서 360류의 심층경락, 즉 기혈(氣穴)에서 문득 예기치 못한 치유력이 불쑥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알맹이<sup>25)</sup>’를 말한다. 김봉한의 산알론은 몸의 경락 혹은 기혈 현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몸과 우주가 동기(同氣)의 상태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주의 생명 현상에 대한 메타포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의 몸처럼 우주 혹은 자연 역시 경락이 있는 것이다. 가령 바람을 예로 들어 보자. 바람이 그냥 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도 ‘길(기혈)’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람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 길은 우주 생명의 흐름에 수렴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확충하기도 하면서 무한한 운동성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람 길은 우주 생명의 흐름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바람 길의 언제나 무한한 생명 생성의 활동을

23) 테야르 드 샤르맹, 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2007, p.244.

24) 김봉한(1916~1966?)은 북한의 경락학자이다. 그는 6·25전쟁 당시 야전병원 의사로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산알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찾았고, 이후 월북하여 평양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인체에 존재하는 경락의 실체에 대해 연구한 결과 몸 안에 많은 수의 ‘산알과 이것을 잇는 그물망 같은 물리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산알이론’으로 확립하였다.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해 ‘비인도적인 인체실험을 통해 연구된 것’이라는 소문과 국제적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이 난처해진 북한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김봉한과 그의 ‘산알이론’을 매장시키기에 이른다. 한때 60년대 북한 과학의 3대 업적으로 꼽힐 만큼 칭송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당했다는 점에서 그는 비운의 경락학자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그 성과물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25) 김지하, 「스톡홀름에서의 41개의 산알」, 『산알 모란꽃』, 시화, 2010, p.35.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바람 길 역시 인간의 몸의 기혈처럼 생명 생성의 관계가 무디어 치거나 그것이 소실될 수 있다. 바람 길의 이러한 현상 역시 인간과 무관할 수 없다. 바람 길의 무한한 생명성과 운동성을 가로 막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형성된 문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집적된 거대 도시인 서울의 경우 바람 길은 철저하게 그 생명성과 운동성을 방해받고 있다. 서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은 곳은 한강과 북한산, 도봉산 근처이다. 여기에서 생성된 바람은 서울의 곳곳으로 흘러들면서 길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 길로 인해 서울은 자정과 정화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의 길만 의식했지 바람 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한 의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바람 길 곳곳에 아파트와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내고 다리를 건설하여 그 흐름을 가로 막아 서울의 생명성을 약화시키고 또 파괴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바람 길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그 영향은 바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간에 의한 바람 길의 차단은 곧 몸의 기혈에도 영향을 미쳐 생명의 흐름 자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 바람 길에서처럼 인간에 의한 우주 생명의 흐름이 약화되거나 차단되는 경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고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perspective)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자각과 의지와 전망의 부재가 깊어질수록 우주 생명의 기혈이 약화되고 무디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 생명의 기혈을 약하게 하고 무디어지게 하는 반생명적인 문화와 문명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개체 생명과 전체 생명 혹은 온생명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같은 개체 생명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기혈이 있고, 지구나 우주와 같은 전체 생명 혹은 온생명은 그것으로서의 기혈이 있다. 그러나 개체 생명이

26) 이재복, 「자연이란 무엇인가?」, 『시와 시』2010년 봄호, 푸른사상, p.27.

든 아니면 전체 혹은 온생명이든 모두가 살아 있는 생명의 알맹이인 ‘산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체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몸 안에 복승을 가능하게 하는 산알이 있고, 전체 혹은 온생명으로서의 지구나 우주에도 복승을 가능하게 하는 산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인간의 몸이나 전체 혹은 온생명으로서의 지구나 우주 내에 은폐되어 있는 눈에 지 않는 산알을 발견하고 그것을 솟구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산알의 발견과 복승은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음 안에 산알이 있고 그것이 지극한 기운을 만나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한 기운에 이르면 서로 통하는 것이다.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 문화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는 생명을 우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래서 고통 받고 있다. 그 분리부터 넘어서자.  
어찌서 하늘과 땅과 목숨이 따로따로 인가?  
어찌서 天地人이 따로 노는가?  
또  
어찌서 天地人은 물, 달, 여성, 그들과 따로 노는가?  
물은 우주와 생명의 근원이다.  
산알은 물로부터 발원한다.<sup>27)</sup>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적 질료는 ‘물’이다. 그것은 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알’ 역시 물과 다르지 않다. 물이 모든 생명을 분리하지 않듯 산알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산알 속에는 우주, 다시 말하면 ‘천지인, 물, 달, 여성’ 등 생명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우주에도 산알이 있고 천지인, 물, 달, 여성에게도 산알이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우주를 생명 논의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생명을 우주와 분리시킨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시인의 논리

27) 김지하, 「누구나 아는 생명 이야기를 이제는 참으로 우주화 하자」, 『흰그늘의 산알 소식과 산알의 흰그늘 소식』, 천년의 시작, 2010, p.110.

는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 문화 정립의 필연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을 우주와 분리시킬 수 없듯이 생명 문화 역시 우주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인류의 문화란 인간의 정신의 산물로 여기에는 우주와 분리되지 않은 생명 문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서 그것은 망각된 채 하나의 아득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 우주가 인간의 마음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연히 생명도 인간의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를 마음에 갖들게 하면 자연히 생명도 마음에 갖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를 내 안에서 생명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뒷산 흰 자작나무 숲길에서 내가 양금이라고 이름 지은 우주 쪽꼬만 딱정 벌레를 바라보며 그 양금이 안에서 양금양금이가, 양금양금양금이가 양금양금양금양금이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애기달처럼 태어남을 보았다.

내 안에서도 달이, 그리하여 그 달의 물빛으로, 태양이 뜨거운 불이 아닌 투명한 찬란한 예감의 빛으로 나날이 드높아짐을 보았다. 왜 그런가? 당신은 안 그런가?”<sup>28)</sup>

시인이 자신의 안에서 어떻게 우주를 생명화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뒷산 흰 자작나무 숲길에서 만난 딱정 벌레가 시인에 의해 양금이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아 있는 생명의 알맹이 곧 산알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양금양금이가, 양금양금양금이가 양금양금양금양금이가”는 그 자체가 산알이다. 시인이 산알의 언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우주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이다. 시인이 탄생시킨 산알의 언어는 ‘애기달처럼 투명한 찬란한 예감의 빛’으로 환기되는 생명체이다. 시인이 꿈꾸는 생명 혹은 생명의 문화란 ‘양금이’나 ‘애기달’처럼 예감의 빛으로 충만한 첫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인이 꿈꾸는 생명의 문화는 ‘첫 문화’이다. 시인은 그 첫 문화를 자주 ‘花開’에 비유하기도 한다.

28) 김지하, 「누구나 우리러 보는 우주생각을 이제는 내안에서 생명화하자」, 『흰그늘의 산알 소식과 산알의 흰그늘 소식』, 천년의 시작, 2010, p.111.

화개란 말 그대로 꽃이 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줄탁동시(倅啄同時)에서처럼 우주의 지극한 기운이 뻗쳐야 한다는 의미가 은폐되어 있다. 꽃잎이 열리기 위해서는 ‘흙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치열한 중심의 힘’과 ‘괴로움과 비움’<sup>29)</sup> 같은 우주의 지극한 기운과 시인의 지극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 개화 곧 첫 문화를 ‘말하고 싶어 건넬 수가 없다’<sup>30)</sup>고 고백한다. 시인의 고백은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의 문화가 개화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하고 찬란한 살아있는 생명의 알맹이의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한 송이 꽃이 피니 세계가 모두 일어선다’<sup>31)</sup>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의 문화가 관계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 4. 반성과 전망

우주 생명 문화 정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이외의 대상들을 이성의 논리로 절대화하면서 우주 생명 문화는 그 기반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기에 이른다. 인간과 우주와의 분리는 곧 생명을 우주로부터 분리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이든 지구든 그 생명의 원천이 우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리는 전체 생명 혹은 온생명을 배제한 채 개체 생명의 차원만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체 생명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독립성을 지니지만 그것은 또한 전체 생명 혹은 온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몸과 우주가 기혈(氣穴)의 작용을 통해

29)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pp.50-51.

30) 김지하, 「첫 문화」, 『산알 모란꽃』, 시학, 2010, p.105.

31) 원오극근(圓悟克勤), 『碧巖錄』19칙, '垂示云, 一塵舉, 大地收, 一花開, 世界起. 只如塵未舉, 花未開時, 如何著眼. 所以道, 如斬一絲, 一斬一切斬. 如染一絲, 一染一切染. 只如今, 便將葛藤截斷, 運出自己家珍, 高低普應, 前後無差, 各各現成. 或未然, 看取下文.'

둘이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의 몸과 우주의 기혈이 활발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곧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문화나 문명은 우주의 존재를 망각한 채 생명 자체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수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상형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인간 중심주의 생명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을 통해 우주 생명 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주 생명의 순리에 따르는 인간의 신실한 마음이다. 이것은 마치 판소리에서의 그늘처럼 세상의 신산고초(辛酸苦楚)를 다 겪으면서 그것을 삭히고 삭혀서 내는 소리꾼의 신실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소리꾼의 그늘이 우주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의 지극한 기운과 우주의 지극한 기운이 서로 통할 때 우주 생명 혹은 우주 생명 문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주를 내 안에서 생명화하고, 내 안과 밖의 모든 생명을 우주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 다시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우주 생명 문화란 눈에 보이는 생명의 차원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차원까지를 수렴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우주가 인간의 마음에서 멀어짐으로써 자연히 생명도 인간의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를 마음에 깃들게 하면 자연히 생명도 마음에 깃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주를 내 안에서 생명화하고, 내 안과 밖의 모든 생명을 우주화하는 일은 점점 생명성을 잃어가는 몸이나 우주 속에 은폐되어 있는 살아 있는 생명의 알맹이인 ‘산알’을 찾아내어 그것이 솟구쳐 오르는 복승(複勝)의 문화를 꽃피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류사의 중대한 기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이듯이 지금 우리 인류는 거대한 우주의 카오스모스(chaosmos)적인 생명의 흐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우주의 카오스모스적인 대혼돈(Big Chaos)의 시기를 변화의 역(易)으로 풀어내면서 우주 생명 문화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 김지하, 『산알 모란꽃』, 시학, 2010.
- 김지하, 『흰그늘의 산알 소식과 산알의 흰그늘 소식』, 천년의 시작, 2010.
- 서정주, 『미당 시전집 1』, 민음사, 1994.
- 고은숙,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지하, 『생명과 자치』, 솔, 1996.
- 김지하, 『흰 그들의 미학을 찾아서』, 실천문화사, 2005.
- 김지하, 「음개벽(陰開闢)에 관하여」,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2005.
- 김지하, 「스톡홀름에서의 41개의 산알」, 『산알 모란꽃』, 시학, 2010.
- 박재주, 『주역의 생성논리와 과정철학』, 청계, 2001.
- 반 고, 『漢書』 卷21上, 律曆志 第1上, 北京, 中華書房, 1992.
- 안동림, 『벽암록』, 현암사, 1999.
- 오문환, 「동학의 생명평화 사상」,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4.
- 우실하, 「율려(律呂)와 삼태극(三太極) 사상」,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세계생명문화포럼, 2004.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6.
- 이재복, 「한국 현대시와 그로테스크」, 『우리말글』 47집, 우리말글학회.
- 이재복, 「자연이란 무엇인가?」, 『시와 시』2010년 봄호, 푸른사상.
- 이재복, 「산알 소식에 접하여 몸을 말하다」, 『시작』, 2010년 겨울호 천년의시작.
- 이정우, 『가로지르기』, 민음사, 1997.
- 장희익, 『과학과 메타과학』, 지식산업사, 2002.
- 장희익, 『온생명』, 솔, 1999.
- 테야르 드 샤르댕, 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한길사, 2007.
- 홍윤기, 「변증법」, 『철학과현실』 제27호, 1996년 겨울호.

❖ ABSTRACT

## Contemporary Explorations to Establish Life Culture

Lee, Jae-bok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done first in establishing the cosmic life culture is to reflect on the old human-oriented culture. If the cosmic life culture absolutizes everything except for humans according to the logic of reason, its foundation will weaken or eventually get lost. Separating humans from the universe is just like separating life from it. Given that all life, whether it is humans or the earth, originated from the universe, such an effort for separation merely values an individual life by excluding all life or whole life.

When the human body and the cosmic chi' blood are not in an active flow, it means there is a problem with life. What is in the greatest need in such a case is the sincere human mind that follows the principle of cosmic life. It is like the sincerity found in the pasonri singer, who mellows all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in the world out and create songs out of them like the shadow. It is the pansori singer's shadow that changes the universe. It is only when the extreme force of human mind communicates with that of the universe that the cosmic life or cosmic life culture can be created.

In that sense, it is urgent to create life out of the universe inside me and create a universe out of all life in and outside me. It is such a grave plan in human history in that it involves finding the "Sanal" which is the core of life living hidden inside the body whose life force gradually goes away or inside the universe, and creating the culture of Bokseung in which it bursts o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s the flow, and the mankind is currently standing in the life flow of the massive universe's chaosmos. The greatest task the mankind is currently faced with is to think over how to deal with the period of Big Chaos in the massive universe's chaosmos reversely and establish the cosmic life culture anew.

---

**Key Words**

우주 생명 문화, 몸, 기혈, 산알, 복승, 카오스모스, 대혼돈

cosmic life culture, body, chi' blood, the core of life living , bokseung, chaosmos,  
big chaos

논문접수일: 2010. 10. 25.

심사완료일: 2010. 12. 01.

게재확정일: 2010. 12. 10.